

# 전북도 삼락농정 실현 '성큼'

## 삼락농정위원회 전체회의

3년간 농가소득 20% 증가  
내실있는 운영... 신뢰 구축

농어업인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삼락농정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결과를 공유하고 2018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송하진 지사와 김석준 삼락농정위원장, 삼락농정위원,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도시·군농부서 관계공무원 등 170여명이 함께했다.

또한 삼락농정 정책발굴에 열정적으로 활동한 삼락농정위원회 위원과 시군에서 삼락농정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 삼락농정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농업인, 전문가, 행정 등 160명으로 출범후 58회의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람받는 농민, 재능받는 농업, 사랑받는 농촌'의 삼락농정 실현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정 거버넌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농업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정 주체들이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반영과 차별화된 정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품목 확대 시행,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와 농민기 공동급식 지원 확대,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생생마을 육성,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농업인

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추진했다.

도와 15개 출연기관이 마을협동조합과 마을상품 소비촉진 상생 협약 체결하고, 직거래장터 상시 운영, 전북로컬마켓 개장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삼락 정책으로 확대했다.

또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 종자·ICT농기계 산업, 정읍 순창 미생물산업, 새만금 첨단농업 등 5대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아시아 최고의 농생명 R&D 및 산업화단지로 육성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계획을 새정부 지역공약 1호로 반영시킴으로써 전북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쌀 값 하락 등 지난해 어려운 농업 여건 하에서도 전북도 농가소득은 호당 3887만 5천원으로 2013년 3086만 9천원 대비 6백여만원이 증가,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9.5%를 달성했다.

2018년 삼락농정의 추진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있는 농촌' 정책 제시, 시군의 삼락농정 거버넌스 확산, 삼락농정 실현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삼락농정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은 "삼락농정은 농어업인이 스스로 학습하고 농정에 적극 참여할 때 실현 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농정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성공사례를 시, 군까지 확산시켜야 하고 농어업인들 체감할 수 있고 도민들이 함께하는 삼락농정이 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도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현업을 유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삼락농정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진성 기자



한국토정정보공사(LX)가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전북도·IBK기업은행과 19일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박명식 LX 사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조충현 IBK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내 중기 지원·경제 활성화 '어깨동무'

## 도·LX공사·IBK기업은행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는 LX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과 함께 '전북지역 중소기업 및 공간정보협력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식'을 19일 LX(공사 본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도, LX공사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IBK기업은행과 함께 동반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상생협력을 실현하고 민간지원 확대를 위하

여 추진됐다.

그동안 동반성장 협약 체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전북지역중소기업 및 공간정보 관련기업에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2017년 협약을 통해 기존 20억원 규모의 대출지원 예치금액을 60억원, 2018년에는 100억원 2020년까지 200억원 규모로 연차별 확대하여 지

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지원은 2억원 한도내 대출과 최대 3.3%의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이자수익에 대한 일부를 전북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사업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LX공사와 전북도내 대학 간 산학협력 R&D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완공예정인 LX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청사에 창업인규베

이팅 시설을 마련하여 창업의 공간과 함께 자금 및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토탈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 김진환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동반성장 협력사업 체결이 전북의 중소기업에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道 첫 해외 우호협력 체결

## 송하진 지사, 20일~23일 베트남 다락성 공식 방문 공동발전 위한 협약 예정

전북도는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 중부지역의 다락성과 민선6기 전북도정 첫 해외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동반 성장의 길을 걷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 등 공식 방문단은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락성에서 우호교류 협약체결 등을 위한 공식 방문길에 오른다.

이번 해외 우호협력 체결은 전북도가 민선 6기 들어 세계팬버리 유치활동, UCLG-ASPAC 개최 등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장기 대륙별 해외 자매우호지역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맺게 되는 우호 협정으로 지난 2009년 중국 윈난성과 우호교류 체결이후 8년간의 우호교류 협약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또 지난 2016년 6월 다락성 성장일행 전북방문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전라북도에서 우호교류 공식 제안을 하면서 양 지역 실무자들의 분야별 교류협의를 진행해 왔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는 그 일환으로 다락성에 우정마을을 조성하는 등 민간교류에 적극 나서면서 양 성·도가 농업, 경제,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공동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베트남은 현재 매년 6~7%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개발,무역,관광 파트너 중 하나로 지목되며 정부가 202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0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가

지고 있는 데다 올 12월 22일이 한·베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는 등 대내·외적으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특히 베트남 다락성은 인구 180만명, 산업구조에서도 농업업 47%, 주요산업은 농산물 생산,가공,수출 등으로 전북도와 유사한 부분이 많고, 연간 커피를 45만톤(베트남 커피의 약 40%), 옥수수 67만톤을 생산하는 등 양으로 상호 교류를 통해 win-win 하며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베트남 방문길 첫날에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전라북도 관광설명회를 갖는다. 호치민은 베트남의 유명한 대표관광지 중 하나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 전라도 방문의 해'에 맞춰 전라북도가 가장 한국적인 문화와 가치를 간직한 곳을 관광홍보하기로 했다.

22일에는 베트남 다락성에서 양 지역 간 우호교류 협약 체결식을 갖는 한편 양 도·성간의 농축산 교류, 대학간 교류, 민간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기 위한 실무진 간담회도 별도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22일은 전라북도와 다락성이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날이자 한·베 수교 25주년이 되는 날로 전라북도 도립국악원과 다락성 전통공연단이 상호 문화를 소개하는 장을 펼치며 향후 문화교류의 시발점으로 삼기로 했다.

이로써 전라북도 자매우호지역은 4개국 9개지역으로 1개국 1개지역이 확대되고, 향후 자매우호 지역과의 교류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속성 있고 상호성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허남주·백경태·최은희·최인정 의원

# 도의회 의원 4명 우수의정대상 수상

허남주(자유한국당 비례대표)·백경태(무주)·최은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최인정(군산3) 의원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제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794명의 광역의원들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수상한 허남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전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섰다.

백경태 의원(무주)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자리와 민생경제, 전략산업과 농정 분야의 도정 시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활발히 전개했다.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조례를 제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했다.

최인정 의원(군산3)은 교육부 협의방문으로 학교총량제 철폐를 강력 촉구하는 한편 학교 노후시설 현장점검 등 현안사업 해결에 앞장섰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